

성경해석학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Th.D., Harvard)외 다수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이유선 (Daughter)

제 3 강

성경 연구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need for sound, biblically-base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we are building a user-friendly, donor-support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five major languages (English, Spanish, Russian, Mandarin Chinese, and Arabic) and distributing it freely to those who need it most, primarily Christian leaders who have no access to, or cannot afford, traditional education. All lessons are written, designed, and produced in-house, and are similar in style and quality to those on the History Channel[®]. This unparalleled, cost-effective method for training Christian leader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won Telly Awards for outstanding video production in Education and Use of Animation, and our curriculum is currently used in more than 192 countries. Third Millennium materials take the form of DVD, print, Internet streaming, satellite television transmission,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http://thirdmill.org>.

성경해석학

제 3 강 성경 연구

목차

I. 서론(Introduction).....	1
II.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1
III. 신학적 근거(Theological Basis).....	3
A. 저자(Writer)	3
B. 독자(Audience)	5
C. 본문(Document)	8
1.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	8
2. 하나님의 조정(Divine Accommodation)	10
IV. 중요성(Importance).....	12
A. 교회 역사(CHurch History)	12
B. 현대 교회(Modern Church)	14
V. 결론(Conclusion)	16

성경해석학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제 3 강 성경 연구(Investigating Scripture)

I. 서론(INTRODUCTION)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일은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고고학자들은 과거로부터 유래한 사물들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들은 어떤 고대 유적지에서 인공물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이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을 때에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재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와 아주 흡사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일도 과거로부터 유래한 것 곧 성경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유래한 성경 구절들을 탐구하며 그것들이 고대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원래 가졌던 의미를 재구성한다. 고대의 문맥들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성경 해석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성령님과 그분에 의해 영감된 인간 저자들이 의도했던 완전히 믿을 만하고 무오하고 권위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In many ways, understanding Scripture is like going on an archeological dig. We all know that archaeologists devote themselves to studying things that come from the past. They dig up artifacts at an ancient site and do their best to reconstruct the artifacts' significance when they were first created and used. Well, in much the same way, investigating Scripture involves digging into something that comes from the past — the Bible. We explore biblical passages that come from thousands of years ago and reconstruct their significance in their original ancient historical settings. Investigating Scriptures in their ancient contexts is a crucial dimension of biblical interpretation because it enables us to discover the fully reliable, infallible and authoritative meaning that the Holy Spirit and his inspired human authors intended when the Scriptures were first written.

이 강의는 성경해석학이란 강좌의 세 번째 강의이고 강의 제목은 "성경 연구"이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탐구하고 발견하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에 집중할 것이다. This is the third lesson in our series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and we've entitled it "Investigating Scripture." In this lesson, we'll focus on several concepts that are important to exploring and discovering the meaning of Scripture.

성경 연구의 과정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연구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의 원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신학적 근거를 설명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원래의 의미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의 중요성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원래의 의미에 대한 정의 문제를 다루어보자. Our discussion of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Scripture will divide into three parts. First, we'll define original meaning, which is the object of our investigation. Second, we'll explain the theological basis for focusing on the original meaning of Scripture. And third, we'll look at the importance of paying proper attention to original meaning. Let's begin with a definition of original meaning.

II.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말하거나 쓴 것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보통 "글쎄, 그것은 내가 의미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경험들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취해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대개는 몇 마디의 설명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성경처럼 수천 년 전에 말해지고 쓰여졌던 것의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에 이르면 상황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성경 구절의 "원래의 의미"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We've all had experiences when someone has misunderstood something we've said or written, and we usually say something like this, "You know, that's not what I meant." We don't like it when people take our words and use them in ways that go against what we first intended. And

usually a few words of explanation settle things. But when it comes to figuring out the original meaning of something that was said or written thousands of years ago, like the Scriptures, things are not so easy. We have to slow down and ask a few questions: What do we mean by the “original meaning” of a biblical passage? Why should we be interested in it? Why is it important for us today?

수많은 학술적 토론들은 원래의 의미를 정의하는 방법을 두고 설왕설래해 왔다. 그러나 이 강좌의 목적상 우리는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이다.

원래의 의미란 하나님과 인간 저자들이 공동으로 그 본문이 처음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개념들과 행위들과 감정들이다.

이 정의가 불러 일으키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는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Countless scholarly debates have raged over how to define original meaning. But for the purposes of this series, we'll define the original meaning of a text as:

The concepts, behaviors and emotions that the divine and human writers jointly intended the document to communicate to its first audience.

To be sure, there are a number of complexities that this definition raises, and we'll deal with some of them as we go along.

그럼 “전달하다”라는 단어부터 다루어보자. 우리는 이 단어를 가능한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성령님과 성경의 인간 저자들은 둘 다 그들의 성경 책들이 여러 가지 수준으로 전달되기를 원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성경의 의사 전달을 주로 성경 저자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생각들 혹은 개념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한 전통적인 설명이 표현하듯이 성경은 머리와 손과 가슴의 관점에서 의사를 전달한다. 이 강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성경은 개념, 행동, 감정의 관점에서 의사를 전달한다. 성경 저자들이 의도했던 것은 그들의 책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의 개념, 행동, 감정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개념, 행동, 감정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성경 본문은 또한 독자들의 개념, 행동, 감정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도하도록 의도되었다. 딤후 3:16-17 은 이것을 잘 보여 준다.

(딤후 3:16-17 개역개정)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Let's start with the word "communicate," which we'll take in the broadest sense possible. Both the Holy Spirit and the human authors of Scripture wanted their biblical books to communicate on many levels. Unfortunately, we tend to think of Scripture's communication primarily in terms of the thoughts or concepts biblical authors wanted to communicate to their audiences. But the Bible's meaning is much richer than this. As one traditional illustration puts it, Scripture communicates in terms of the head, the hands and the heart. Or to put it in the terms we've used in this lesson, it communicates in terms of concepts, behaviors and emotions. Biblical authors designed the Scriptures to draw attention to their own concepts, behaviors and emotions as well as to those of others mentioned in their books. But more than this, biblical texts were also intended to impact and to change their audiences' concepts, behaviors and emotions. As we read in 2 Timothy 3:16-17: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 Timothy 3:16-17).**

성령님은 성경이 신자들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과 그 이상의 것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들이 원래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지 좁은 지적인 의미에서 단어들과 문들이 의미했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자들이 그들의 독자들에 미치려고 의도했던 포괄적인 영향을 찾고 있는 것이다. The Holy Spirit designed Scripture to accomplish all these things and more in the lives of believers. So, when we say that our investigations are intended to discover the original meaning, we're not simply trying to find out what the words and sentences might have meant in a narrow intellectual sense of the word. Rather, we're looking for the full range of impact authors intended to have on the lives of their first audiences.

우리가 원래의 의미라는 개념을 고찰할 때 세 가지 주된 관심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첫째 관심사는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본문이고, 둘째 관심사는 성령님께서 영감하시어 본문을 쓰도록 하신 인간 저자이고, 셋째 관심사는 인간 저자가 본문의 첫 수신자로 의중에 둔 독자이다. As we consider the concept of original meaning, it's helpful to think in terms of three main concerns: the biblical document we're investigating, the human writer that the Holy Spirit inspired to write the document, and the audience that the human writer intended to be the first recipients of the document.

본문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처음 독자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인간 저자가 중요한 것은 유기적 영감의 과정을 통하여 본문이 저자의 생각, 의도, 감정, 문예적 기교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독자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인간 저자가 독자들 자신의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특별히 말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성경 본문이 역사상의 시간과 본문의 원래 독자들이 경험했던 삶의 정황에 맞도록 역사적으로 조절되거나 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document

is important because it's the actual word of God that was sent to the first audience. The human writer is important because, through the process of organic inspiration, the document reflects the author's thoughts, intentions, feelings, literary skills, and so on. And the audience is important because both the Holy Spirit and the human author crafted the document in a way that spoke particularly to them in their own context and circumstances. This means that every biblical text was historically conditioned for, or accommodated to, a time in history and a life-situation experienced by the original audience of the text.

인간 저자들이 만든 본문에 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점들에서도 그들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그들의 본문을 통해 원래의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고 의도했는가 하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둔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연구하는 일은 그것이 여전히 그 저자와 처음 독자가 처한 역사적 상황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본문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탐구는 많은 조사, 주의 깊은 사고, 상상력을 요구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연구는 더 이상 그 원래의 배경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본문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It's true that human writers create documents that affect their audiences in ways they never intend. But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we're especially interested in how biblical writers intended to impact their original audiences through their documents. So, investigating the original meaning of a biblical passage involves exploring the text as if it were still within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of its writer and first audience. This kind of exploration requires a lot of research, careful thinking and imagination. In other words, it requires a lot of human effort because biblical documents no longer exist in their original settings.

원래의 의미에 대한 이런 이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것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근거를 다루어보자. With this understanding of original meaning in mind, let's address the theological basis for emphasizing it when we're investigating Scripture.

III. 신학적 근거(THEOLOGICAL BASIS)

우리의 성경 연구에서 원래의 의미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데는 건전한 신학적 근거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저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신학적 근거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원래의 독자들을 고찰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본문 자체의 기능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인간 저자를 고찰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다루어보자. There is a sound theological basis for emphasizing three aspects of original meaning in our investigation of Scripture. First, we'll speak of the theological basis for giving attention to the writer. Second, we'll consider the original audience. And third, we'll look at the function of the document itself. Let's begin with the theological basis for considering the human writer.

A. 저자(WRITER)

이전 강의(제 2 강)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고 말했다. 성령님은 인간 저자들의 개성, 경험, 감정, 사고 방식 등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인간 저자들의 중요성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 22:41-45 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마 22:41-45 개역개정)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In a previous lesson, we mentioned that the Bible is organically inspired by God. The Holy Spirit chose to communicate his word through the personalities, experiences, emotions, and patterns of thought of human biblical writers. And there are several places in the Bible where the importance of the human writers is mentioned explicitly. For instance, listen to what Jesus said in Matthew 22:41-45:

Jesus asked them,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rist? Whose son is he?" "The son of David," they replied. He said to them, "How is it then that David, speaking by the Spirit, calls him 'Lord'? For he says,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If then David calls him 'Lord,' how can he be his son?" (Matthew 22:41-45).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시편 110 편의 다윗 저작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시편에 대한 그의 해석을 그것의 인간 저자가 다윗이란 사실과 연관지어 말씀하셨다. In this passage, Jesus referred to David's authorship of Psalm 110. And he specifically tied his interpretation of the psalm to the fact that its human author was David.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다.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하심에 틀림없다. 실제로 예수님의 논증은 우리가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만 납득이 간다. 예수님께서 이 단락에서 하신 것처럼 모든 믿을 만한 성경 해석은 책들을 쓴 인간 저자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Jesus pointed out that since David called the Christ "Lord," the Christ could not merely have been David's son. The Christ had to be even greater than David. In fact, Jesus' argument only makes sense if we consider the fact that David wrote this psalm. And just like Jesus did here, all responsible

interpretation acknowledges the significance of the human writers of biblical books.

(라이켄[Philip Ryken] 박사)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기쁨들 중의 하나는 성경을 쓴 저자들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주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성경을 조명하는 방편이 된다. 이에 대한 온갖 종류의 예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을 생각해 보라. 그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후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도시에 임하는 것을 체험했고 그 도시에 떨어진 재앙을 보고 슬퍼하는 애가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더 깊고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니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언급된 이야기들의 문맥에 비추어 그의 서신들을 읽는 것이 우리의 이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저자들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그들의 가르침을 적절한 문맥 안에 놓음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보강한다. One of the joys of reading and studying the Bible is coming to a deeper knowledge of the men who wrote the Bible. And often this has a way of illuminating the Scriptures, giving us a deeper understanding. There are all kinds of examples of this. I think, for example, of the ministry of Jeremiah, the weeping prophet, and understanding what he went through as he prophesied judgment against the people of God in Jerusalem and then actually experienced God's judgment falling on that city and then lamented the disaster that had befallen the city. All of that gives a deeper, richer understanding of the whole book of Jeremiah. Or think of just all we know about the apostle Paul and how helpful it is to read his epistles in the context of the

stories that are told about his ministry in the book of Acts. The Bible reinforces its meaning by helping us understand the life and experience of the biblical authors, and that sets their teaching into its proper context.

— Dr. Philip Ryken

인간 저자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특징들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또 하나의 예로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다윗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을 고려해보라. 사무엘하는 다윗이 밋세바와 관련해 지은 죄와 그 후에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을 다루는데 아홉 장을 할애한다. 그러나 역대상은 이 이야기들의 어느 부분도 언급하지 않는다. 역대상은 다윗의 족보를 제외하고는 밋세바와 압살롬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는다.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생애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생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쓴 인간 저자들의 역사적 상황과 의도와 관련이 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의 계보가 다윗의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임을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저자의 내러티브 목적에 중요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독자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매우 압축된 역사를 쓰고 있었다. 그가 사무엘서를 반박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귀환한 지도자들에게 다윗 왕조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했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그 자신의 내러티브 목적들에 부합했던 다윗의 생애의 부분들을 기록했을 뿐이다. Focusing on the human writer helps us understand many features of Scripture. As another example, consider the different ways that 2 Samuel and 1 Chronicles tell the story of the kingship of David. 2 Samuel devoted nine chapters to the sin of David with Bathsheba and Absalom's rebellion that followed David's sin. But 1 Chronicles doesn't tell any part of these stories. It doesn't even mention the names of Bathsheba and Absalom, except in David's genealogy. Why would the Chronicler omit such major events in David's life? The answer

has to do with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intentions of the human writers of Samuel and Chronicles. The author of the books of Samuel was concerned with showing that the Davidic line was God's choice for Israel despite David's shortcomings, so telling the story of how David responded to his sin was crucial to the author's narrative purpose. But the author of Chronicles was writing a very condensed history of Israel for an audience returning from exile. He didn't contradict Samuel, but he only recorded the parts of David's life that suited his own narrative purposes, which were to teach the returning leadership how Davidic kings should reign in Israel.

(페닝톤[Jonathan T. Pennington] 박사)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성경 책들의 저자와 독자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들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원래 배경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다. 그러한 정보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읽고 적용할 때 사려깊고 믿을 만한 수준에 이르도록 도와주므로, 우리는 원래의 저자가 의미했던 것이나 원래의 독자가 듣고 이해했던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러한 정보 곧 성경 저자와 성경 독자에 대한 배경 정보를 “좋은 종 그러나 나쁜 주인”으로 묘사하고 싶다. 그러한 정보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을 때 참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주된 방법과 주된 통로로 여긴다면 내 생각에 그것은 자주 우리의 이해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고통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을 인정하되, 여러분의 성경 연구의 시작이나 끝에서 그것을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로 삼지는 말라. Today especially we have available to us a lot of information both about the original setting of when the biblical books were written both in terms of their author and also in terms of their audience. And that information can be very, very helpful,

especially to help us get at a wise and even safe reading and application of a text so that we're not saying something that in no way was related to what the original author meant or what the original audience heard. Yet at the same time, I think that kind of information, that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biblical author and the biblical audience is what I like to describe as "a good servant but a bad master." It can really help us as we're interpreting the Bible, but if we make that the main way and the main avenue through which we understand what the Bible is saying, I think it will often limit our understanding and even misconstrue it at points. So it's helpful, but don't make it your main focus at the beginning or the end of your study of Scripture.

— Dr. Jonathan T. Pennington

(워커[Peter Walker] 박사)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의 원래의 상황에 관하여 아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먼저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성경의 권위는 저자의 배경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하거나 재구성한 것에 있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자의 배경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저자의 배경과 개성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면 분명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저자와 가상의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상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와 직관적이고 가상의 접촉을 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저 딱딱하고 이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삼차원적인 것이 되도록 해 줄 것이다. There's incredible value in knowing about the writer's original context to understand a particular part of Scripture. But first just to say a bit of a warning: Actually the authority of the Scripture is in what is written, not in our imagining or reconstructing the author's background. So, so long as we remember that their words are true even if we don't fully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writer, that's important. **[Cindy Sawyer's paraphrase: "So,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words of Scripture's human authors are true, even if we don't fully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writer."]** But if we can understand something more of the writer's context and their personality, that's going to help us. And I think it's going to help us just to be able to make imaginative connections with them. **[This is a fairly recent English-language quirk. Traditionally, in formal writing, we have referred to the third person singular as "he." Lately, some people have felt that using only "he/his/him" wasn't inclusive enough, so it has now become acceptable (in some circles) to use the plural pronoun "they/their/them" rather than having to use the more awkward "he or she/his or hers/him or her." The more correct version of this sentence (in the more traditional sense) would be: "But if we can understand something more of the writer's context and his personality, that's going to help us. And I think it's going to help us just to be able to make imaginative connections with him. And so we can imagine Paul in prison and can begin to see what it was like, and we can kind of make intuitive and imaginative connections with him."]** **And so we can imagine Paul in prison and can begin to see what it was like, and we can kind of make intuitive and imaginative connections with them. And that's going to make Scripture become three-dimensional to us, not just wooden and two-dimensional.**

— Dr. Peter Walker

우리가 이미 언급한 단락들에서 성경은 우리가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감하신 인간 저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저자들의 상황, 개성, 경험, 기교, 의도 등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n passages like the ones we've mentioned, Scripture demonstrates how important it is for us to focus not just on God as the ultimate author of Scripture, but also on the human writers he inspired. And that means that we have to learn as much as we can about the situations, personalities, experiences, skills and intentions of these writers.

지금까지 성경 본문의 인간 저자를 강조하는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원래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중요한 두 번째 측면인 그 본문의 처음 독자 곧 처음 수신자에 대하여 다루어보자. Having seen the theological basis for emphasizing the human writer of a biblical document, let's turn to a second important aspect of our investigation of original meaning: the first audience or recipients of that document.

B. 독자(AUDIENCE)

당신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동안 내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역사적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주신 것을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고대 이스라엘에게 컴퓨터로 처리한 번역문으로 주셨다고 상상해보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초대 교회에게 프랑스어나 중국어로 주셨다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라. 이런 시나리오들은 성경의 원래의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분은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헬라어로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 동안 내내 하나님은 그분의 원래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든 그분의 계시를 항상 조정하셨다. Have you ever noticed that throughout biblical history God gave his Word to his people in ways that suited

their historical circumstances? Imagine if God had given ancient Israel a computerized version of the Ten Commandments. Or what if God had given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to the early church in modern French or Mandarin? These scenarios don't make sense because the original audiences of Scripture would not have understood what God was saying to them. And, of course, this isn't what God did at all. He wrote the Ten Commandments on stones. He led Christ's apostles and prophets to write in Greek. In fact, throughout biblical history, to one degree or another, God always accommodated his revelation to his original audiences so that they could understand.

하나님의 조정이란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가 처음 독자들에게 의해 이해되도록 작성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Divine Accommodation is the idea that:

God designed his revelation to be understood by its first audience.

하나님께서 성경의 단어들과 사상들이 처음 독자들의 문화, 기술, 사회 구조, 심지어 종교 경험 등에 맞도록 조절하셨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He adapted the words and ideas of Scripture to the culture, technology, social structures and even religious experiences of its first audiences, so that they would understand what he was saying.

일반적인 조정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정에 이르는 스펙트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조정을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는 성경의 모든 부분은 보편적인 인간적 조건에 맞추어 쓰여진 사실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할 때마다 역사상의 모든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될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It helps to think of divine accommodation in terms of a spectrum ranging from

general to specific accommodations. On one end of the spectrum, every portion of Scripture was written to suit the universal human condition. By this we mean that every time God revealed himself to human beings, he did it in ways that were applicable, in one way or another, to every human being throughout history.

존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 1 권 13 장 1 절에서 조정의 일반적인 관점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들어보라.

보모들이 유아들에게 혀짤배기 소리로 발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한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미미한 능력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다.

Listen to the way John Calvin described the general aspects of accommodation in hi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1, chapter 13, section 1:

Who ... does not understand that, as nurses commonly do with infants, God is wont in a measure to “lisp” in speaking to us? ... [S]uch forms of speaking ... accommodate the knowledge of him to our slight capacity.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성은 우리의 지성을 훨씬 더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모가 유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낮추어야만 하신다. As Calvin pointed out, God’s mind is so far beyond our minds that he has to speak to us as a nursemaid speaks to an infant. Because God is so immeasurably greater than we are, he has to stoop very low in order for us to understand him.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보편적인 조정을 본다. 그것은 신인동형론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거의 사람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때들이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분의 의도를 바꾸시고, 질문을 하신다. 이와 비슷한 수많은 특징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들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적 한계들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We see this kind of universal accommodation throughout the Scriptures. It appears most dramatically in anthropomorphisms — the times in Scripture when God speaks, behaves, or appears in ways that seem almost human. God speaks human language; he’s grieved; he changes his intentions; he asks questions. These and countless other features of divine revelation were designed to meet our general human limitations.

하나님의 조정의 스펙트럼의 중간 쪽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를 문화적 기대에 맞추신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신을 고대 근동에서 계시하셨다. 이 문화적 맥락에서 그분은 고대 근동의 국제 조약들과 유사한 언약들을 세우셨다. 언어에 관해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원래의 독자들의 특정 언어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곧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국제적인 신약 교회를 위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원래 독자들의 이러한 폭넓은 문화적 상황들을 고려했다. 문화적 기대에 따른 조정의 예로 마 19:8 말씀을 들어보라.

(마 19:8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Toward the middle of the spectrum of divine accommodation, God also fit his revelation to cultural expectations. For example, he revealed himself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in this cultural context, he established covenants that resembled ancient Near Eastern international treaties. With regard to language, God revealed himself through the specific languages of his first audiences, such as Hebrew and Aramaic in the Old Testament for the nation of

Israel, and Greek for the international New Testament church. Divine revelation in the Bible took into account these kinds of broad cultural circumstances of the original audiences of Scripture. Listen to Matthew 19:8 as an example of accommodation to cultural expectations:

Jesus replied, "Moses permitted you to divorce your wive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이보다 앞선 절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결혼 규례를 정하셨고 이혼이 이상적인 결혼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가 신 24:1-4 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셨다. In the preceding verses, Jesus had said that God ordained marriage at creation, and that divorce was not part of the marriage ideal. Then he went on to explain that Moses had permitted divorce in Deuteronomy 24:1-4 only because of Israel's sinful hardness of heart.

신명기 24 장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가 이혼당한 여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규례를 주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사용하여 이혼 증서가 주어지는 한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할 수 있음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래의 독자를 위한 하나님의 조정을 계산에 넣으셨는지 유의하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논거를 들어, 예수님은 모세가 그의 처음 독자들 곧 이스라엘 민족에 맞추기 위한 조정으로 이혼을 단지 "허락했다"고 주장하셨다. 이혼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용납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고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비추어 그들의 죄에 의해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혼 증서에 관한 명령을 주셨다. In Deuteronomy 24, Moses gave legislation requiring that a certificate of divorce be given to a divorced woman. Some Pharisees in Jesus' day had used this passage to justify divorce for any reason, so long as a certificate was given. But notice how Jesus factored in God's accommodation

to the original audience. He said that God gave this law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On this basis, Jesus argued that Moses merely “permitted” divorce as an accommodation to his first audience, the nation of Israel. Divorce wasn’t ideal, and it wasn’t even really acceptable. But in light of Israel’s stubborn and unforgiving spirit, God had commanded divorce certificates as a way to minimize the damage done by their sin.

이 예는 성경 단락을 연구할 때 원래의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이런 바리새적 관행에 대한 예수님의 교정은 모세의 법을 원래의 독자에게 맞춘 하나님의 조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This example indicates just how important it can be to investigate the original audience of a biblical passage. Jesus’ correction of this pharisaical practice rested on the divine accommodation of Moses’ law to the original audience of Scripture.

하나님의 조정의 스펙트럼의 다른 한쪽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특정한 사람들과 같은 개인들에게 그분의 계시를 맞추신 것이 있다. 하나님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의,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특정한 개인들의, 장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 등을 고려하셨다. On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God also accommodated his revelation to individuals, such as the specific people to whom he spoke. He took into accoun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the accomplishments and failures, of particular groups of people, and sometimes even of specific individuals.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어느 특정 교회에 주어진 서신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신들 가운데서 골로새서 3 장 같은 단락들에서 우리는 부모, 자녀, 종, 주인과 같은 특정 교회 안의 보다 더 작은 그룹에게 주어진 가르침을 발견한다. 그리고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같은 일부 바울 서신들은 실제로 한 특정 개인에게 보내졌다.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은 원래 독자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이러한 성경적 계시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원래 독자들에게 관하여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For example, in the New Testament we have many letters that are addressed to one specific church or another. And within those letters, in places like Colossians 3, we find teachings

that are given to smaller groups within those churches, such as fathers, children, slaves and masters. And some of Paul's letters, like Philemon, 1 and 2 Timothy, and Titus, were actually written to one specific person. In various ways, the Holy Spirit shaped these scriptural revelations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their original audiences. So,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velations properly, we have to learn as much as we can about those original audiences.

(엄[Stephen Um] 박사) 우리가 성경 저자들이 특정 독자에게 쓰고 있었을 당시에 그 처음 독자들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연구할 때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저자가 흠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고 있었고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유대교 아래서 어느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늘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핍박할 때 그들은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싶은 유혹을 늘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독자들을 이해하고 구약의 모든 다른 개인들과 제도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Well, it's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 initial readership when the biblical writers were writing to a particular audience. That's very, very important. For example, when you take the book of Hebrews ... the writer there, whom we do not know, that writer was writing to an audience of a dispersed group of Jewish Christians, and they were being persecuted. And they would have had every temptation to go back into Judaism because they would have had some level of protection under Judaism. And so when the people who were coming to persecute them, they would have had every temptation to just abandon their

Christian faith. So what the writer is doing is understanding that historical context, understanding the readership, trying to encourage them about the supremacy of the person of Jesus Christ over all of the other individuals and systems in the Old Testament.

— Dr. Stephen Um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 하나님은 특정 장소와 특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곧 원래의 독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성경의 주목할 만한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성경은 위로 부터 내려온 규정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배경 안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었던 것 곧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해에 있어서 한계가 무엇인가를 아는 일에 도움이 된다. 만일 내가 원래의 독자들이 이해했던 것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 분명 내 자신의 맥락이 중요할 것이지만 내 자신의 맥락은 그들의 맥락에 비추어 이해되어야만 하고 그럴 때만 나는 해석의 확실한 한계들이 무엇일지 알게 될 것이다. God revealed himself to an original audience, people in a particular place, in a particular time. This is one of the remarkable things about the Bible. It is not merely a collection of prescriptions from on high. God was speaking to particular people in a particular setting, and so when we know how they understood what they were hearing from God, what they were receiving from God, that helps us to know what the limits are for our own understanding. If I'm understanding the Bible in some way very

different from what the original hearers understood it, there's something wrong. Surely, my own context will make a difference, but my own context has to be understood in the light of their context, and then I'll know what the probable limits of interpretation can be.

— Dr. John Oswalt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연구가 성경의 원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신학적 근거를 논의하면서 저자와 원래의 독자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경 본문 자체에 집중해 보기로 하자. So far in our discussion of the theological basis for focusing our investigations on the original meaning of Scripture, we've considered the significance of the writer and the original audience. So at this point, we're ready to focus on the biblical document itself.

C. 본문(DOCUMENT)

우리가 어떤 성경 단락의 원래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그 단락 자체를 살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의 현대 번역본들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번역본들에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훈적 사역들 중의 하나를 대표하고 있다. 우리가 번역본들 가운데 차이가 있는 특정 단어나 어구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강의가 강조하듯이 우리는 성경 단락의 원래의 의미 곧 성령님과 그분이 영감하신 인간 저자들이 의도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성경의 원어들 곧 구약의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익숙해져야 한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 원어들에 대한 전문가가 될 사람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이 원어들에 대하여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경의 원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It should be obvious that if we want to know the original meaning of a biblical passage, we have to look at the passage itself. Now for many of us, this means that we simply read our modern translations of the Bible. Modern translations are not infallible, but they do repres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teaching ministries of the church. And as long as we're careful not to depend too much on a particular word or phrase that may be different in one translation or another, we can learn a lot from the translations we use. But as this lesson stresses, we must do all we can to grasp the original meaning of biblical passages — what the Spirit of God and the writers he inspired intended. So, when God gives us the opportunity, we should also become familiar as much as possible with the original languages of Scripture: Hebrew and Aramaic in the Old Testament and Greek in the New Testament. Now few of us will become experts in these languages, but the more we know about them, the better we'll be able to understand the original meaning of Scripture.

우리의 연구에 있어서 성경 본문을 강조하는 신학적 근거는 주로 두 가지 중요한 교리들 즉 유기적 영감과 하나님의 조정이란 교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교리들이 각각 어떻게 성경 본문의 중요성에 주의를 촉구하는지를 살펴보자. 그럼 먼저 유기적 영감 교리를 살펴보자. The theological basis for emphasizing the biblical documents in our investigation can be found mainly in two important doctrines: the doctrine of organic inspiration, and the doctrine of divine accommodation. Let's look at how each of these doctrines points to the importance of the biblical documents, beginning with the doctrine of organic inspiration.

1.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

유기적 영감이란 교리는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시어 성경을 쓰도록 하셨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본문을 베낀 모든 사본이

완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본문에 대한 모든 번역이 완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렘 8:8 과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 성경 자체가 성경 본문에 대한 사본들이 실수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여러 번역본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The doctrine of organic inspiration teaches that the Holy Spirit inspired human authors to write Scripture. But it does not say that every copy made of that document will be perfect, or that every translation made from that document will be perfect. In fact, in places like Jeremiah 8:8, Scripture itself says that copies of biblical documents can contain mistakes. And we have all seen that different translations of the biblical documents can vary greatly.

유기적 영감의 교리는 성경의 원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원본만이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권위를 갖는다. 수세기에 걸쳐 필사되어 오면서 이 본문에 일어난 변화들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것이 아니고 그 본문에 대한 번역본도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원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확신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감하신 본문을 찾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Because the doctrine of organic inspiration extends only to the original texts of Scripture, only those documents have the full authority of God himself.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se texts as they have been copied over the centuries are not inspired by God, and neither are the translations of those texts. So, in order to increase our confidence that we have rightly understood the original meaning of Scripture, we have to do all we can to find and study the writings that God actually inspired.

물론 우리 시대에 성경의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본은 어떤 성지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 우리에게서 원본을 베낀 사본들과 번역본들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본들과 번역본들의 권위는 그것이 성령님의 영감 아래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실제 본문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Of course, in our day we're somewhat removed from the original

documents of Scripture because they're no longer available. They don't exist in some holy shrine or in a museum. We only have copied texts and translations. And the authority of these copies and translations always depends on how well they represent the actual documents that the biblical writers produced under the inspiration of the Spirit.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 성경의 권위를 전면 부인하는 이유로 자주 제시된다. 세속주의자들은 성경의 원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어찌 그것을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회교도들은 코란이 알라에 의해 완벽하게 보존되어 왔다고 자주 주장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보다 코란을 더 신뢰한다. 이런 문제들은 매우 자주 제기되므로 우리는 잠시 이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This fact is often raised by opponents of the Christian faith as a reason for rejecting the authority of Scripture altogether. Secularists argue that we can't know what the original texts of Scripture said, much less follow them. Muslims frequently argue that the Quran has been perfectly preserved by Allah, and therefore they trust the Quran over the Bible. These issues come up so often that we should pause to offer some explanation.

첫째로,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약 성경에 대한 원본이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에 조금씩 다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판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아람어 역본들도 있었고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의 다양한 역본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은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이 신뢰할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데 적절하다고 믿었다. 이와 비슷하게 초대교회가 신약 성경에 대한 많은 사본들을 사용한 것도 그들 역시 믿을만한 사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데 완전히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First,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followers of Christ to remember is that the original documents of the Old Testament didn't exist in Jesus' day either. Slightly different Hebrew versions of Old Testament books existed at that time. And there were also Aramaic versions, as well as multiple versions of the Septuagint, the Greek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But Jesus and his

apostles still believed that the Scriptures they had were trustworthy and adequate to lead the people of God. Similarly, the early church used multiple copies of the original New Testament documents because they also believed reliable copies to be fully sufficient for directing God's people.

둘째로, 현대 기독교인들은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성경의 고대 사본들을 연구하고 비교하는 일에 헌신하여 얻은 탐구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거듭 거듭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과 헬라어 본문이 대부분의 다른 고대 작품들의 본문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성경을 보존해 오셨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들은 주의깊게 해석을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하는데 여전히 적절하다. Second, modern Christians have the advantage of many decades of scholarly research devoted to studying and comparing ancient copies of the Scriptures. These explorations have confirmed over and over that the Hebrew and Greek texts of the Bible are far more reliable than the texts we have of most other ancient writings. In his providence, God has preserved the Scriptures in remarkable ways. For this reason, the Bibles we have today are still adequate to lead the church of Christ, if we interpret them carefully.

(크루거[Michael J. Kruger] 박사) 고대 시대에 책들을 물려주려면 필사자들에 의해 손으로 글자마다 그리고 단어마다 일일이 베껴져야만 했다. 이런 과정에서 끼어들어 온 철자의 실수, 단어의 생략, 어순의 변경 등과 같은 필사상의 변형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성경이 전 역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전승되어 오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실수들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의미가 있고 매우 심각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의 원래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정도이냐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원래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현존하는 사본들을 보며 서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볼 수 있다. 성경에 관한 이 문제에 있어서 기쁜 소식은 우리가 매우 많은 사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고 원문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찾고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말씀이 원래 쓰여졌을 당시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해 준다. 필사자들이 때때로 본문을 변경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매우 충실하게 원래의 본문을 되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할 정도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If you're going to transmit books in ancient history, it has to be hand copied by a scribe and copied letter by letter and word for word. When that happens there are natural scribal variations that slip in: misspellings, words left out, word order changes, and so on. Those are inevitable if the Bible is going to be transmitted in normal time and space throughout history. But the question is are those changes so significant, and so meaningful, and so severe to call into question whether we have the original words of Scripture. Well,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we have the original words of Scripture, we can look at the collective remaining manuscripts we have and compare them with one another, and we can see how much change has taken place over time. And the good news when it comes to the Bible is we have so many manuscripts of the Bible that we can compare them, we can see how they have developed over time, and we can look and see what the original text actually was. And this gives us a lot of confidence that the words that we have today are the words that were originally written back then. So, yes, scribes did alter the text from time to time but not in such a way that we can't recover the text in a very faithful way.

— Dr. Michael J. Kruger

(월러스[Daniel B. Wallace] 박사) 성경은 수세기에 걸쳐 손으로 베껴졌다. 사실상 성경의 모든 사본은 주후 1454 년까지 손으로 베낀 것이다. 성경의 원형이 시간이 흐르면서 손상되었는가에 대한 짧은 대답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긴 대답은 성경의 원형이 어떻게 손상되었고 얼마나 많이 손상되었는가 하는 문제까지 고려한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관한 한 책별로 따로 결정해야 하지만, 성경의 복사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본문상의 변형들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위태롭게 된 필수적인 교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 . 아마도 우리는 누군가 이런 전승 과정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본문을 보존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로 간주되어 오는 것으로서 이런 변형들의 어느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필수적인 교리는 하나도 없다.

The Bible has been copied by hand century after century after century. In fact, all copies of the Bible until the year 1454 were done by hand... So the short answer to whether the Bible has been corrupted over time is: of course it has. But the long answer says, but how has it been corrupted and how much has it been corrupted? When it comes to those kinds of issues, it almost depends on book by book, but one of the most amazing things about the copying of Scripture is that there's not a single essential doctrine that has ever been jeopardized by any of these textual variants. It's an amazing fact... we might almost say that, gee, someone behind the scenes is preserving the text for us... But once again, there's no essential belief that

has been considered a cardinal belief of the Christian faith that is impacted by any of these variants.

— Dr. Daniel B. Wallace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대 번역본들이 불완전하므로 우리는 연구가 정당화하면 그것들을 개선하려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성경 해석이 어떤 어구의 특이한 해석, 어떤 특별한 단어의 선택, 혹은 소수의 고대 사본이나 특별한 성경 역본들에만 나타나는 어떤 작은 문제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특정 본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을 참고하며 확정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Even so, since modern translations are imperfect, we should be open to improving them as research warrants. Moreover, we must never allow our interpretations of Scripture to depend too heavily on the turn of a phrase, the choice of a particular word, or some other small item that appears in only a few ancient manuscripts or in particular translations of Scripture. We need to work hard to confirm our interpretations of particular portions of texts with many other portions of Scripture.

유기적 영감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의 성경 연구에서 본문을 강조하는 두 번째 신학적 근거 곧 하나님의 조정이란 교리를 살펴보자. With this understanding of organic inspiration in mind, let's turn to the second theological basis for emphasizing the biblical documents in our investigation of Scripture, namely, the doctrine of divine accommodation.

2. 하나님의 조정(Divine Accommodation)

조정 교리는 단어들, 문법, 문체 등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관습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이러한 관습들을 반영하는 방식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The doctrine of accommodation implies that everything in Scripture — including things like its words, grammar

and literary style — rose out of the cultural and linguistic conventions of its day. So, if we pay careful attention to the ways Scripture reflects these conventions, we'll be more likely to interpret it correctly.

한 가지 예로 요 20:16 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어보라.

(요 20:16) 예수님은 “마리아야”하고 부르셨다. 그녀는 그분에게로 돌이키며 아람어로 “라보니”하고 불렀다.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As just one example, listen to this account from John 20:16:

Jesus said to her, "Mary." She turned toward him and cried out in Aramaic, "Rabboni!" (which means Teacher) (John 20:16). (요 20:16)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말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보라. 이 본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나,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인용할 때 “선생님”에 대하여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 단어를 사용한 후 번역을 제시했다.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words in parentheses. This text was written in Greek, but when John quoted Mary, he didn't use the Greek word for “teacher”; he used the Aramaic word, and then offered a translation.

요한은 먼저 마리아의 말을 아람어 단어 [라보니]로 언급했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던 원래의 단어였다. 그러나 분명 요한은 그의 원래의 독자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모를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 [디다스칼로스]로 번역해 줌으로써 본문을 그들에게 맞도록 조정했다. 요한은 [라보니]를 먼저 사용함으로써 마리아의 반응의 극적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지연의 순간을 만들었다. 요한의 본문은 그의 독자들이 마리아의 기쁨에 찬 외침의 실제 소리를 상상하도록 하여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그녀의 기쁨을 음미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John first referred to Mary's words with the Aramaic term *rabboni*, which was the original word that Mary spoke to Jesus. But John apparently believed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his first readers didn't know Aramaic. So, he accommodated the text to them by offering a translation that they would understand: the Greek word *didaskalos*. By first using *rabboni*, John created a moment of hesitation that heightened the drama of Mary's response. John's text led his readers to imagine the actual sound of Mary's joyous cry, to help them appreciate her joy in the risen Savior.

이와 같은 문예적인 기교와 관습은 성경의 원래의 본문에 들어있는 조정의 중요성을 보여 주며, 우리가 원래의 의미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에 집중하도록 격려해 준다. Literary devices and conventions like this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accommodations in the original documents of Scripture, and encourage us to focus on similar issues in our investigation of original meaning.

(비버트[Simon Vibert] 박사)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원래의 독자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저자들이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복음서 저자들은 그들의 처음 독자들을 위해 아람어나 히브리어 단어들을 번역해 주었다. 혹은 그들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지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장소들은 때때로 다른 지방들과 관련지어 언급되었다. 원래의 독자들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저자들이 온갖 종류의 방식들을 동원하여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독자들의 손에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As you read the Bible, it becomes very evident that the writers did what they can to help their original readers understand what was being said in the text. So, for example, the gospel writers might translate Aramaic or Hebrew words for the benefit of their first readers. Or sometimes locations**

will be pointed out in relationship to other localities so that they can orientate themselves within the geography in which it was written. And there are all sorts of ways in which it is quite evident that the writers thought that the original readers needed help in understanding the text so that they would put into their hands, as it were, the tools they needed to read the Bible properly.

— Dr. Simon Vibert

(키너[Craig S. Keener] 박사) 그것이 인간과 관계된 것이라면 모든 것은 문화적 맥락을 갖는다.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주신다. 그 메시지가 성경처럼 말로 된 것이면 그것은 어떤 특정 언어로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것이 주어졌던 문화의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주 분명하게 문화를 관통한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문화에서 동일하다. . . 그러나 성경에는 지붕 주위에 난간을 만드는 것 곧 지붕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은 일도 나온다. 그렇게 할 때 이웃 사람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집주인이 죄책을 짊어질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근에는 평평한 지붕들이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웃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는 일도 없고 따라서 지붕 주위의 울타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난 원리는 모든 문화에 적용될 수 있다. 거기에 드러난 원리는 여러분의 이웃의 안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지키는 자이어야 한다. 성경의 전부가

모든 상황을 위한 것은 아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지만 모든 상황을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른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기 때문이다. Everything has a cultural context if it's human. There's no way you can address humans without human language and human culture. And so, when God gives us his message, he gives us his message in ways that we can understand. When it's in words, as Scripture is, it'll be in a specific language. And also, it comes to us in the concrete forms of the cultures in which it was given. Now, some things are very clearly transcultural. I mean,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is the same in all cultures... But then, there are also things in Scripture like building a parapet around a roof, or a fence around the roof, so your neighbor won't fall off the roof and you incur blood-guilt. Well, in my neighborhood, we don't have flat roofs. Normally our neighbors don't go up on the roof, so the fence around the roof isn't the issue. But the principle there can be applied in all cultures, and the principle there is that you should care about your neighbor's safety. You are your brother or sister's keeper. Not all Scripture is for all circumstances. It's for all time, but it's not for all circumstances. We need to find out what the circumstances are, and we need to find out how to apply it concretely in those different situations, because that's the way God gave it to us.

— Dr. Craig S. Keener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 자체는 모든 성경 단락에 대하여 저자, 독자, 그리고 본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원래의 의미에 대한 이 세 가지 길잡이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많은 힘든 작업을 요구한다. 그러나 성경 단락의 저자와 독자와 본문에 대하여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것의 원래 의미를 더욱 더 잘 탐구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의 의미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경을 오늘의 우리 삶에 더욱 더 잘 적용할 수 있다. As we've seen, the Scriptures themselves provide a strong theological basis for giving attention to the writer, the document and the audience of every biblical passage. Now of course, paying attention to all three of these guides to the original meaning requires a lot of hard work. But the more we know about the writer, and the document and the original audience of a biblical passage, the better we'll be able to explore its original meaning. And the more we understand the original meaning, the better we'll be able to apply the Scriptures to our lives today.

지금까지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의 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의 성경 연구에 있어서 원래의 의미에 집중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루어보자. Now that we've seen what original meaning is and explored its theological basis, let's look at the importance of focusing on original meaning in our investigation of Scripture.

IV. 중요성(IMPORTANCE)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적절한 연구의 중요성을 고찰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전 교회 역사 동안, 특히 종교 개혁 시대 동안에 이 과정의 중요성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현대 교회에서 원래의 의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무시해 온 몇 가지 도전들을 논의할 것이다. 그럼 먼저 교회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 We'll consider the importance of proper investigation in two ways. First, we'll look at the significance of this process throughout church history, especially during the Protestant Reformation. And second, we'll address some challenges in the modern church that have discounted the importance of

the investigation of original meaning. Let's begin with a brief look at church history.

A. 교회 역사(CHURCH HISTORY)

원래의 의미를 추구하는 일은 성경 해석의 어떤 새롭고 현대적인 강조가 아니다. 어떤 시대 동안에 기독교 교회가 원래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의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관심을 두며 꽤 복잡한 해석학적 체계를 옹호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라도 기독교의 전 역사에 걸쳐서 주요 신학자들은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해 왔다. Pursuing original meaning isn't a new, modern emphasis of biblical interpretation. It's true that at certain times the Christian church advocated rather elaborate hermeneutical systems that were far less concerned with original meaning than we are today. Even so, throughout the history of Christianity, leading theologians have urged that pursuing the original meaning of Scripture is an essential part of biblical interpretation.

초대 교회의 관심사들 중의 하나는 이단적 그룹들이 그들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도전들에 직면하여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초대 교회의 많은 저자들은 성경의 원래의 메시지만이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 원래의 메시지를 보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One of the concerns of the early church was to preserve the original meaning of Scripture against the rising challenges from heretical groups that twisted its meaning to suit their own purposes. Many early writers in church history worked hard to preserve the original message of biblical books because only the original message was authoritative.

예를 들면, 초대 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주후 130-202)는 그의 작품 **이단 논박**(*Against Heresies*) 3 권 7 장 1 항에서 바울 서신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비난했다. 거기서 이레니우스가 말한 것을 들어보라.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에 대한 그들의 시인과 더불어 실제로 이 세상의 한 신이 있지만 모든 주권, 시작, 권능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한 신이 있다는 그들의 주장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바울 서신을 바르게 읽는 법을 모른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For instance, the early church father Irenaeus, who lived around A.D. 130 to 202, condemned false interpretations of Paul’s writings in his work *Against Heresies*, Book 3, chapter 7, section 1. Listen to what Irenaeus said there:

“As to their affirming that Paul said plainly i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In whom the god of this world hath blinded the minds of them that believe not,” and maintaining that there is indeed one god of this world, but another who is beyond all principality, and beginning, and power ... they ... know not how to read Paul.

이레니우스는 예수님이 구약의 창조주 신보다 더 높은 신으로부터 오셨다고 믿은 영지주의 교사들을 반박하고 있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신 곧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로 “모든 주권, 시작, 권능을 넘어서는” 더 높은 신 곧 신약의 신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도록 했다고 믿었다. 이레니우스는 이 영지주의 해석자들이 바울의 원래 의미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바르게 읽는 법을 몰랐던 사실을 드러내는데 그의 책의 제 7장을 할애하였다. Irenaeus was refuting Gnostic teachers who believed that Jesus came from a higher god than the creator God of the Old Testament. These false teachers believed that 2 Corinthians 4:4 taught that the Old Testament “god of this world” blinded people to the existence of this higher New Testament god, who is “beyond all principality, beginning and power.” Irenaeus devoted this chapter

of his book to demonstrating that these Gnostic interpreters didn't know how to read Paul because they were missing Paul's original meaning.

중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성경이 주로 교회 전통의 맥락에서 검증되는 어떤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 곧 소위 문자적 의미(*sensus literalis*)의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 또한 있었다. During the Middle Ages in Europe, there were some extreme cases in which the Scriptures were viewed primarily within the context of church tradition. But there was also a strong belief in the value of original meaning or *sensus literalis*, as it was often called.

예를 들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작품 **신학대전**(*Summa Theologica*) 1 부 1 문 10 항에서 문자적 의미는 본문이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다른 의미들에 대한 기초라고 주장했다. For example, the famous theologian Thomas Aquinas argued in his work *Summa Theologica*, Part 1, question 1, article 10 that the *sensus literalis* was the foundation for all other meanings a text might be said to have.

따라서 성경에 어떤 혼란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모든 의미들이 한 의미 곧 문자적 의미에 기초하기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논쟁도 풍유로 의도된 의미들이 아니라 바로 이 문자적 의미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Thus in Holy Writ no confusion results, for all the senses are founded on one — the literal — from which alone can any argument be drawn, and not from those intended in allegory.

이 부분이 분명하게 암시하는 것처럼 아퀴나스는 성경에 많은 의미들이 있다고 믿었지만 “모든 의미들은 . . . 문자적 의미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자적 의미가 “어느 논쟁이든”—곧 교회에서 어떤 해석이든—“그로부터만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As this passage clearly indicates, Aquinas believed that there are many senses for Scripture, but he insisted that “all the senses are founded on ... the literal.” And

that this literal sense is that "from which alone can any argument" — or interpretation in the church — "be drawn."

그 후에, 14 세기에서 17 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르네상스 기간 동안 본문의 해석에 대한 교회의 통제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성경 해석을 기존의 교회 전통에 일치시키려는 강조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성경의 원래의 의미에 대한 강조가 증대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동안 수많은 고대 헬라어와 라틴어 고전 문헌들이 원래 언어로 유럽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 문헌들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그것들의 원어와 역사적 배경에 주의를 집중했다. 더욱이 그들은 그 문헌들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교회의 권위와 전통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에 기초를 두었다. Later, during the European Renaissance of the fourteenth through seventeenth centuries, the church's control over the interpretation of literature began to wane. As a result, the emphasis on conforming interpretation to existing church tradition began to weaken, and the emphasis on the original meaning of the Scriptures began to increase. During this period, a number of important ancient Greek and Latin classical texts began to circulate around Europe in their original languages. And scholars that studied these texts focused on their original languages and historical settings. Moreover, they based their interpretations of these texts on the original meaning rather than on the authority and tradition of the church.

이러한 변화는 15-16 세기의 종교 개혁 기간 동안 해석학에 일어났던 일의 많은 부분의 기초를 놓았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같은 학자들은 성경의 원어들과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들은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성경이 로마 천주교의 신학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믿었다. This shift laid the groundwork for much of what took place in hermeneutics during the Protestant Reformation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Scholars like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devoted themselves to investigating the Scriptures in their original languages and historical contexts. They believed that knowing the original meaning of Scripture

enabled them to maintain the Bible as their only absolute authority, even over the theology of Rome.

성경 해석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문법적-역사적 방법”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이 방법은 성경 안에서 증명되고, 교회 역사 동안 내내 중요했고, 종교 개혁 시대 이래로 성경 연구의 지배적인 접근 방법이 되어 왔다. Among evangelical scholars, this view of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came to be called the “Grammatico-Historical Method.” This method is attested to in Scripture, was important all throughout church history, and has been the dominant approach to the study of Scripture since the time of the Reformation.

(페닝톤[Jonathan T. Pennington] 박사) 중세기 동안 성경은 모든 사회의 교과서였다. 학식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성경을 연구하는데 바쳤고 성경 연구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한 성경 연구에 있어서 중세기 동안 본문의 많은 다른 계층들에 초점을 맞추며 성경을 읽는 매우 복잡한 방식이 발전되었다. 성경의 원래의 의미, 곧 역사적인 저자의 의도는 분명히 중세기의 해석 방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후대의 많은 해석과 달리 저자의 의도 곧 원래의 의미는 좋은 독서를 위한 기초로 간주되었지만, 원래의 의미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기독교론적 독서였고 자주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추는 종말론적 독서였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종말론적이고 기독교론적인 독서였다. 그러므로 저자의 의도는 중요했지만 궁극적인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았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In the Middle Ages, the Scriptures were the book of all of society. All the learned people spent most of their time studying the Scriptures, and it played a great role in society as

well as in the church, of course. And in that studying of Scripture, they developed, during the Middle Ages, a very somewhat elaborate way of reading Scripture that focused on many different layers of the text. The original meaning of the Scriptures, if we mean by that the historical authorial intent, was certainly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interpretive method of the Middle Ages. It was seen, however, as a means to a greater end. Unlike much of later interpretation, the authorial intent or the original meaning was seen as the basis for good reading, but there was something that was seen to be more important than just the original meaning. It was the Christological, the focus on Christ, and often the eschatological or the focus on a final end times or final Christological reading of the Bible. And so the authorial intent mattered but it wasn't seen as the end game. It was seen as a means to an end.

— Dr. Jonathan T. Pennington

(빈잔트[Carey Vinzant] 박사) 당신이 중세기에 원래의 의미와 교회 전통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한다면 중세기의 해석자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세기에 사람들은 성경의 의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 . . 교회 전통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기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임했기 때문이다. 21 세기 개신교도로서 우리는 가볍게 웃음으로 그것을 넘겨버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면역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존 칼빈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아니면 존 웨슬레나 마틴 루터나 어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중세기에 일어나고 있던 일은

사람들이 믿음의 규칙의 역동성에 기초한 성경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세기 해석자들이 묻고 있던 질문은 “사도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믿음이 어떻게 이 단락의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Asking the ques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meaning and church tradition in the Middle Ages is something that probably would have made a medieval interpreter look at you oddly, because in the medieval period they we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meaning of Scripture... They were coming at the Bible with a basic conviction that church tradition was the teaching of the Bible. Now, it’s kind of easy for us as twenty-first century Protestants to snicker at that, but we’re not immune to that. There are plenty of our people who are running around who will say, you know the teaching of John Calvin is the teaching of Scripture, or John Wesley, or Martin Luther, or whoever. So, what is happening in the Middle Ages is they are doing an approach to interpreting Scripture that is grounded in the dynamic of the rule of faith. The question that medieval interpreters are asking is, “How is the faith handed down by the apostles emerging for us through the particulars of this passage?”

— Dr. Carey Vinzant

지금까지 성경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 동안 내내 중요했음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현대 교회에서 일어난 이 개념에 대한 도전들의 일부를 고찰해보자. Now that we’ve seen that investigating the original meaning of biblical texts was important throughout church history, let’s consider some of the challenges to this idea that have arisen in the modern church.

B. 현대 교회(MODERN CHURCH)

우리는 성경 뿐만 아니라 모든 본문의 원래의 의미의 중요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문시되어 온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많은 해석자들은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훨씬 능가하는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 단락에 관한 많은 의미들에 대하여 말했다. 그러나 현대에서 성경의 원래의 의미 혹은 어떤 문헌의 원래의 의미의 가치가 의문시되어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소통의 성격 때문이다. We live in a day when the importance of original meaning of any text, not just the Bible, has been questioned in a variety of ways. As we've already seen, in the past, many interpreters spoke of many meanings for every biblical passage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 Bible came from God whose mind is far beyond our comprehension. But in the modern world, the value of the Bible's original meaning or the original meaning of any literature has been questioned not because of God but because of the nature of human communication.

20 세기 초에 현대적 문학 비평 학파들은 원래의 의미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가장 최초의 학파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저자들과 원래의 독자들을 거의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역사가들은 저자들과 독자들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현대 문화로부터 얻는 이론들을 고대 문화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의 독자들이 고대 저자들의 의도에 대하여 믿을만한 식별을 할 수 없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적 지식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우리가 저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실제로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modern schools of literary criticism began to disregard original meaning. The earliest of these schools generally argued that the authors and original audiences of Scripture were largely unknowable. Historians said that the writers and audiences couldn't be identified with certainty.

Anthropologists emphasized that we can't apply inferences from modern cultures to ancient cultures. Psychologists suggested that modern readers can't reliably discern the intentions of ancient writers. And philosophers argued that all human knowledge is so subjective that we can never really know what writers were thinking.

20 세기 중엽에 고대 저자들과 독자들을 밝힐 수 없음으로 인한 좌절 때문에 많은 해석자들은 저자와 독자를 무시하고 본문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신 비평가들은 본문을 아무런 역사적 맥락 없이 읽으려고 했다. 구조주의자들은 어떤 문헌에서 그 언어적 체계에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들과 비교하면서 단어들의 선택에서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독자 반응 중심의 비평가들은 동시대의 독자들이 본문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들에서 의미를 찾았다. By the middle of the twentieth century, frustration with identifying ancient writers and audiences led many interpreters to ignore them altogether and to focus entirely on the text. New critics tried to read texts without any historical context. Structuralists found meaning in the choices of words in a document in relation to all the other potential choices in the linguistic system. And reader-response critics looked for meaning in the responses contemporary readers had to the text.

20 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문학 비평가들은 본문 자체의 의미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일부 후 구조주의자들은 고대 저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현대 독자들에게 강요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본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명백한 모순들과 모호한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고대 본문을 “파괴하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많은 비평가들은 고대 저자들을 제거해 버리며 현대 독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성경의 단어들을 왜곡하는 일까지 장려했다. In the last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literary critics went so far as to say that the meaning of the text itself was unknowable — or worse, evil. Some post-structuralists refused to allow ancient writers to impose their ideas on modern readers. They encouraged readers to “deconstruct” ancient texts by focusing on apparent contradictions and

ambiguities in order to make the texts appear incomprehensible. And many critical scholars dismissed ancient authors, and encouraged modern readers to twist the words of Scripture to fit their own purposes.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찾는 일의 가치에 반기를 든 비평학자들로부터 유익한 통찰력을 많이 얻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종교 개혁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해석학적 독단, 곧 인간 해석자들의 독단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처음으로 영감하시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성경 단락들을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주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경을 사용하며 단지 그들 자신의 권위를 다른 사람들의 삶에 행사하기 위해 성경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개인들과 문화적 운동들과 교회들과 다른 세력들에 대항하여, 성경의 권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As strange as it may sound, it's actually possible to gain a lot of useful insights from critical scholars who challenge the value of discovering the original meaning of Scripture. But on the whole, we're wise to remember the lessons of the Reformation. The only way to avoid hermeneutical tyranny, the tyranny of human interpreters, is to view biblical passages in the historical context within which the Holy Spirit first inspired them. This is the only way to secure the authority of the Bible against individuals, cultural movements, churches and others who frequently use the Scriptures for their own purposes and claim to have the support of the Scriptures simply to exert their own authority over the lives of others.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권위자들의 해석학적 독단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성령님께서 영감하셨던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을 살피는 것임을 알았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현대의 개인들과 정치 운동들과 교회들과 다른 세력들의 해석학적 독단에 대항하여 성경의 권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The Reformers saw that the only way to avoid the hermeneutical tyranny of church authorities was to view the Bible in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Holy Spirit inspired it. In much the same way, the only way to secure the authority of the Bible against the hermeneutical

tyranny of contemporary individuals, political movements, churches and other powers is to pursue the Bible's original meaning.

V. 결론(CONCLUSION)

성경 연구에 관한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원래의 의미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원래의 의미를 강조하는 신학적 근거를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의 의미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In this lesson on the investigation of Scripture, we've defined the original meaning of Scripture as the object of our investigation. We've explained the theological basis for focusing on original meaning. And we've looked at the importance of paying proper attention to original meaning.

본 강의 전체를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 해석의 많은 측면들은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성령님과 그분이 영감하신 저자들이 원래의 독자들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려고 의도했던 방식들 곧 원래의 의미를 식별하기 위해 고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을 연구한다. 원래의 의미는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각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성경의 각 단락의 원래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킬 준비를 항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현대적 적용이 성경의 권위적인 원래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As we've seen throughout this lesson, many aspects of biblical interpretation are like going on an archeological dig. We investigate the Scriptures in their ancient historical contexts to discern their original meaning — the ways the Holy Spirit and his inspired authors intended to impact the concepts, behaviors and emotions of their original audiences. Doing our best to grasp the original meaning of each biblical text is crucial to interpretation because the original

meaning bears the authority of God himself for all of his people throughout history. And for this reason, we should always stand ready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meaning of every biblical passage, so that we can insure that every modern application we make accords with its authoritative original meaning.